

한기능 조각전

30일 ~ 7월 9일 예술의 전당

조각으로 만나는 '불교와 나'



여성작가 특유의 섬세함에 동양적 감수성과 이탈리아 등 지서 배우고 느낀 서양적 시각, 거기에 스스로의 구도적 제철을 바탕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열어오고 있는 조각가 한기능 씨가 30일~7월 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2002년 부산 비엔날레'를 앞두고 부산 비엔날레조직 위원회에서 기획한

눈길 끄는 작품

- '두건 쓴 구도상'
'몸통 비운 조각상'
'고뇌하는 연꽃'

'해외활동 부산작가 초대전'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구도'라는 열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조각 60여점, 회화 30여점, 설치 3점 등 1백여점에 달하는 작품이 선보인다.

지난 10년간 한기능 작품세계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리석과 청동을 소재로 한 조각작품에서부터 회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

도 눈길을 끈다.

특히 부처의 모습보다는 승려나 재가 불자 등 인간의 모습을 작품의 모티프로 삼아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구도의 열정과 집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부좌를 뜬 채 광배를 연상시키는 두건을 쓴 구도상이나, 몸통을 공처럼 비워놓은 조각상, 합장한 남자 성형스님의 청동 좌상도, 달라이라마를 떠올리게 하는 두상, 고뇌와 어우러진 연꽃 등의 작품들은 한기능 고유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기에도 충분하다. 이같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미술 평론가 강선학씨는 '종교적 주제의 현대적 해석과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불교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에서는 조각뿐 아



몸통을 비워놓은 이 조각상 역시 '구도'를 주제로 삼았다.

1999년~2001년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바닷가에서 그린 유화작품들도 선보이는데, 오랜 구도 여행 끝에 눈뜬 심안으로 바라본 우주적 장엄을 유희의 붓터치로 새롭게 펼쳐 보인다. 지난해 '선' 토스카나의 자연 등으로 명명된 이들 유화는 그의 조각작품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명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5580-1300

이은자 기자 eel@buddhan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난 16일 우리사상연구소 주최로 서강대에서 열린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말 철학사전>에 수록될 주요개념 중 '시간'이란 주제에 대한 발표회로, 서울대 물리학과와 장학회 교수가 발표자로 초청되었다. 현대철학은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서, 철학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를 초청하여 주제발표를 듣는 것 같았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과학과 기술을 도외시하면 시대의 흐름에 금방 뒤처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과학자였다가 나중에 철학에 헌신하여 '유기체철학'을 확립한 화이트헤드로부터, 노장과 주역과 불교 등 동양의 현학(玄學)과 최선의 양자역학이 교차하는 소위 신과학운동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철학의 만남은 시대적 대세를 이루면서 우주를 해석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시대와 장소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언어로 거듭 해석되어온 불교도 최신헌학이 이룩한 학문적 성취를 수용하고 신세대의 언어감각에 맞게 새롭게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주제 '시간' (4)

서구 철학자들 '시간' 실체찾기 끊임없는 탐구

고 있다. 특히 플라톤 이후 2500년 동안 서구철학을 주도해온 패색적인 가치체계를 반성하며, 보다 성숙된 시선으로 세계를 보는 '깨달음의 철학'을 주장한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수용하는 데 있어 노장과 불교의 사유체계를 동원하는 학계의 움직임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정신문화원의 김영호 교수는 <존재와 시간>으로 대표되는 하이데거 전기사상을 이해하려면 불교 유식학(唯識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란 점을 밝혔으며,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창제 제, 후기사상 또한 회암학과 선학(禪學)적인 접근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양에서 시간을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사람으로 먼저 '그리스의 장자(莊子)'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헤라클레이토스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만물유전(萬物流轉) 사상을 펼쳤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든 동일한 강물에 발을 두 번 적실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서양철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은 시간의 문제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 중의 하나인 '영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데아(Ideas)론에 따라 먼저 영원한 존재를 상상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는 타 존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영원한 절대세계 속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상대세계에 사는 타 존재들은 하나의 차례로 보여지는 사물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 속에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플라톤은 시간을 '영원의 움직이는 영상'이라고 불렀다. (계속)



독특한 형태의 티베트 불상.

과동해작 '승하산정'.

불교왕국 티베트展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 2돌

정부의 달라이 라마 방한 불허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이 티베트의 생활, 문화, 신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 '하늘에 닿는 불교왕국 티베트'를 연다. 박물관 신축개관 2주년을 맞아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티베트의 불상과 탱가, 민속품과 복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을 따라해 보여준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접하기 힘든 티베트 만다라 제작과정 체험기회도 제공한다. 티베트스님을 초청 박물관 중앙홀에서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티베트의 불교사상과 현황을 알려주는 초청강연도 준비된다. 0255382-1001

동문展 '동방의 빛'

동국대 미술학부 30주년 기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동방의 빛'전을 28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30년간 15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동국대 미술학부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계 학계 등에서 활동 중인 100여 동문들의 작품 150여점이 동양화, 서양화, 불교미술, 조각 등 분야별로 전시된다. 025580-1234



'카르마'는 반야심경을 배경으로 한 무대장치와 토우 분장으로 자아완성을 위한 불자에 힘을 더한다.

선무도와 무드라 '몸짓 접목'

우바이무용단 '카르마' 28일 서울 국악원 공연

이번 공연은 2001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 레퍼토리로 결정돼 무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선무도의 접목과 반야심경을 배경으로 한 무대장치, 토우로 분장한 무용수들의 자아완성을 향한 몸짓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선무도를 한국무용에 접목시켜 낸 춤사위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통도사부신포교원 법당에서 하루 3시간의 강행군을 하고 있다'는 안무가 이영미 씨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힘들지만, 머리와 마음은 오히려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며 25명의 무용수들과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다. 우바이무용단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통도사부신포교원 주지 심산스님의 역할도 컸다. '카르마'의 대본을 쓴 장본인이기도 한 심산스님은 '인간의 감각적인 욕망을 정화하고 관념을 부수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인 빛의 고향, 즉 궁극의 세계에 가 닿으면 마음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형상화했다'라고 작품의도를 설명했다. '카르마'는 종교적 선입견을 깨고 보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 정서와 혼을 담아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icheon@buddhania.com

Large advertisement for '태영산업' (Taeyoung Industry)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자선암', '생전에수재', '여름불교학교', and '대학입시 백일기도'.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